

# 220개 새싹기업·250개 투자사의 만남

### 광주시, 지역최대 창업페스티벌 11월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 협업 모델 발굴·창업 생태계 조성

창업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창업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지역 최대 규모의 광주 창업페스티벌이 열린다.

광주시는 "11월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20개 새싹기업(스타트업)과 250개 투자사, 국내·외 대기업 14개사가 참가하는 지역 최대 규모의 '2023 광주창업페스티벌(Gwangju Startup Festival, GJSF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 광주창업페스티벌은 광주시가 주최하고 지역 창업 지원기관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시관광공사 등 공동 주관한다.

이번 창업페스티벌에서는 콘퍼런스, 대기업 개방형 혁신전략(오픈 이노베이션), 1대1비즈니스 상담(미팅), 투자유치기업 발표(IR), 창업 버스

킹 등 다양한 관계망(네트워킹)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전시공간에서는 인공지능(AI)·에너지·모빌리티 등 6개 산업 분야별 120여 개의 지역 유망 새싹기업이 참가해 창업 아이템을 선보이고 투자사, 협업 기업 등을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갖는다.

또 광주시흥보관을 비롯한 한국벤처투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일본무역진흥기구 등에서는 창업 유망기관 부스를 운영하고, 기관별 특화분야 창업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선 대기업 개방형 혁신전략(오픈 이노베이션)을 희망하는 지역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사전 미팅(Meet-up)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T,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메가존클라우드 등 국내·외 대기업 14개사가 참가하며, 대기업과 새싹기업의 협업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의 동반관계를 구축한다.

광주시는 지역 새싹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를 위해 유망 새싹기업 220개사를 발굴하고 지역 기업

에 관심있는 투자사 250개사를 모집해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미팅(Meet-up)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투자유치 행사는 투자 규모·단계별 맞춤형으로 총 7회 개최되며, 특히 KDB산업은행의 대표 프로그램인 '넥스트 라운드 인 광주(Next Round in Gwangju)' 투자 유치 발표 등이 포함돼 지역 새싹기업의 역량을 펼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투자유치 행사를 위해 경쟁력 있는 새싹기업 90개사의 기업 자료를 투자사에게 사전 제공했으며, 지원기관별 투자유치 전담반을 구성해 행사 종료 후에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광주창업페스티벌은 '창업 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창업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드는 축제'라면서 "광주의 1호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페스티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노인 돌봄 생활지원사 양성서 힐링 프로그램

### 광주시사회서비스원, 30명 참여

광주시사회서비스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광역지원기관은 "최근 국립 장성 숲체원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30명을 대상으로 업무 소진예방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업무현장에서 벗어나 심신 회복과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아로마 테라피, 편백도마 만들기 등 각종 체험활동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생활지원사는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의 안전 등을 지키느라 매일 긴장만 하고 지냈는데, 동료 종사자들과 숲 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보니 온 몸이 힐링된 듯하다"고 만족해 했다.

김대성 광주시사회서비스원장은 "현장에서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생활지원사분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및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상태나 욕구에 따라 생활지원사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1회용품 반입 금지 점심시간 다회용품 교환 행사

광주시가 다음달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반입 금지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자원순환과는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을 반입하는 직원과 시민에게 다회용품 교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와 공공기관은 그동안 1회용품 줄이기 위해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제한과 회의·행사때 생수 플라스틱병, 종이컵 사용을 금지해 왔으나, 편의성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청사 인근 13개 카페와 다회용품 대여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9월 말까지 2만 7000여개의 다회용품을 사용을 유도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캠페인을 통해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을 줄이는 한편 내년부터는 광산구와 다회용품 보증금제 시범운영 등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신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탈 플라스틱 광주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외출할 땐 개인컵(텀블러)이나 장바구니를 챙기는 습관이 절실하다"며 "1회용품 줄이기에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이 추가돼 모두 21개 품목으로 늘었다. 또 1회용 봉투·쇼퍼백, 응원 용품은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확대·강화된 제도는 1년간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며, 1회용품 사용 적발 시엔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5일 공공임대주택인 금호빛어울채 주민을 대상으로 'One-Stop 이동복지상담소'를 운영했다.

## 임대주택 'One-Stop 이동복지상담소' 호응

광주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One-Stop 이동복지상담소'를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9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지역 내 전문기관과 함께 금호빛어울채 입주민을 직접 만나는 현장 중심 맞춤형 종합서비스인 '임대주택 One-Stop 이동복지상담소'를 운영했다. 이동복지상담소에서는 취업지원, 금융서비스, 생활법률 정보 등을 한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요 상담내용은 각종 심리·취업·진로 상담, 맞춤 대출 상담 및 소액대출 상담, 사전 상담 신청한 입주민을 대상으로 민사·가사 소송 등 개인 맞춤형 법률 상담 등이다.

이번 상담소 운영에는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북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지역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가 함께 참여했다.

정민곤 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임대주택 One-Stop 이동복지상담소'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개인별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게나마 기여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주민 맞춤형 서비스 등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상무지구 공공 임대주택 착공

### 460세대...2026년 준공 광주 최초 중형세대 공급

광주 도심 노른자위 땅에 '국민 평형'(국평)을 포함한 중형 평형대 공공 임대주택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광주시와 광주 도시공사는 최근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 소각장 인근에서 '광주형 통합 공공 임대주택' 착공식을 열었다.

광주형 통합 공공 임대주택 조성에는 국비 409억 8400만원, 기금 419억 6600만원, 도시공사 예산 575억 4600만원 등 총사업비 1404억 9600만원이 투입된다. 지하 1층, 지상 5~26층 6개 동과 460세대 규모 30년 장기 공공임대 아파트로 2026년 준공 예정이다. 특히 30년 공공임대 최초로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면적 84㎡(33평형) 규모 220세대가 들어선다.

전용 면적 36㎡(17평형) 68세대, 59㎡(24평형) 172세대 등 12~14평이 많은 기존 공공 임대

아파트보다 전용면적을 크게 넓혔다.

이번 사업은 신규 공동주택의 고분양가,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전세사기 등 불안한 주택 시장 여건 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 아이가 있는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청년, 신혼부부, 아이가 있는 무주택 서민 등을 대상으로 준공 6개월~1년 전 모집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에 따른 주변 주민의 거센 반대로 있었지만, 강기정 시장이 직접 소각장주민지원협의회체와 상무지구아파트연합회 대표단 등을 수차례 만나 설득하고 소통한 끝에 공감대를 형성, 사업 추진에 힘을 받게 됐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단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지하철 2호선 역이 생기게 되고, 버스 노선도 더 연결해 지하철 사각지대를 메우면 교통 편의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광주시 하남근로자복지관 수탁기관 공모

광주시는 "광산구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사업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문화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역 내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에 힘써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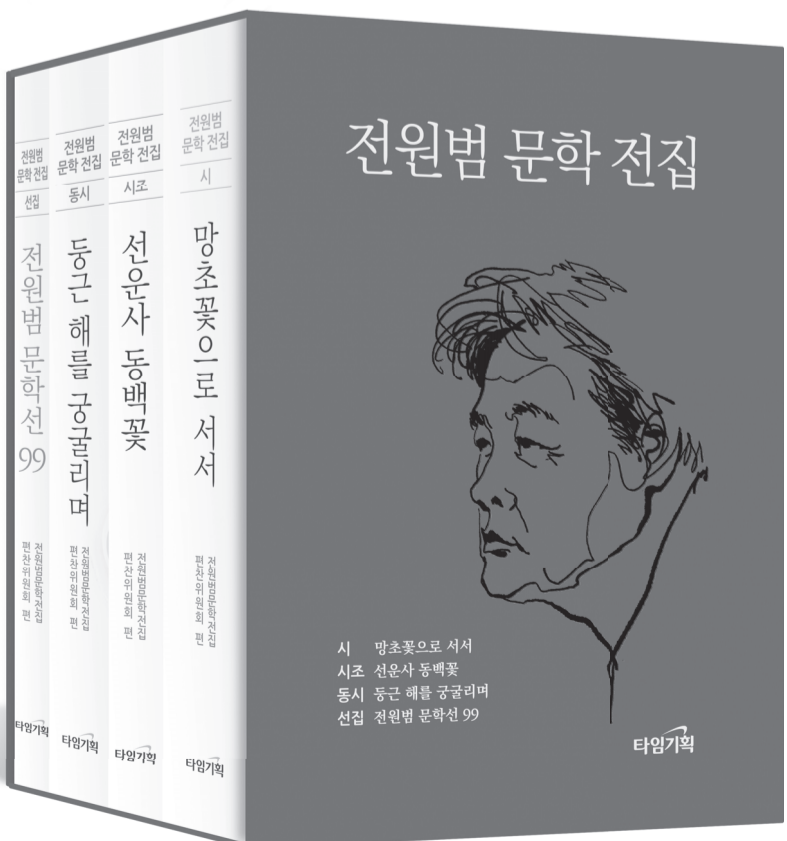
주요 사업은 교양·교육사업, 체육·문화사업, 복지관 시설관리, 대관사업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 간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또는 분사무소)가 광주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최근 3년 이내 근로자복지관 운영경험이 있거나 노동복지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한 실적을 보여야 한다. 신청서는 11월 6~7일 이틀간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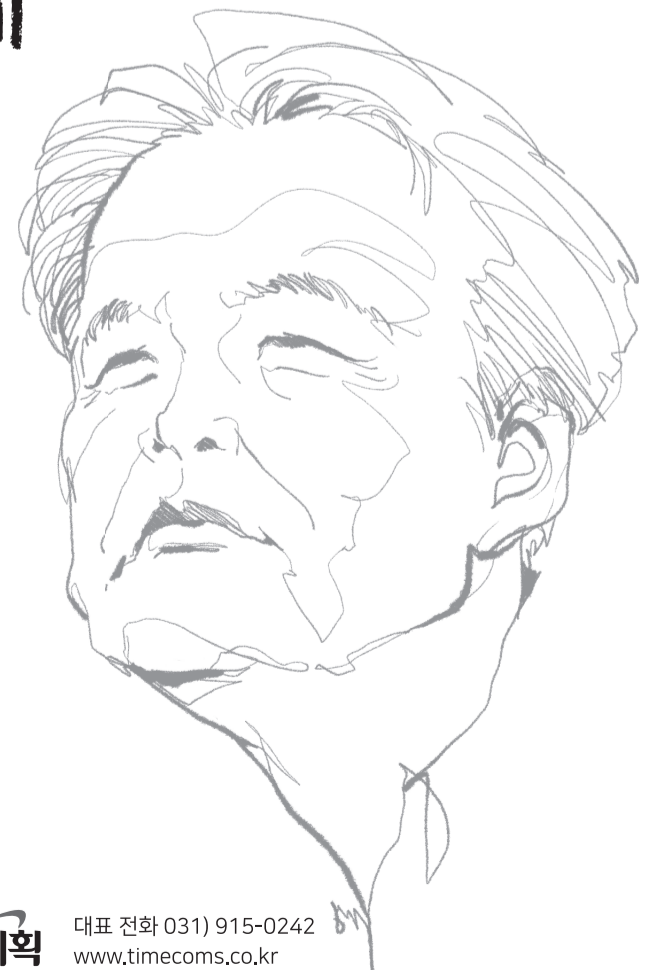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 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임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환(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역문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